

우리는 허영심이 너무 커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까지 신경 쓴다.

마리 폰 에브너 에센바흐



우리는 허영심이 너무 커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까지 신경 쓴다.

우리는 허영심이 너무 커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까지 신경 쓴다.

우리는 허영심이 너무 커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까지 신경 쓴다.

우리는 허영심이 너무 커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까지 신경 쓴다.
